

수도교회 어린이부 가정예배문(3/29)

1.기도

부모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봄을 만드신 하나님.

주님의 품처럼 따뜻한 햇살이 내리는 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주시고 위로해주세요.

그리고 밤낮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힘주시고, 이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가정이 이번 주도 하나님의 돌보심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린이: 하나님, 지나온 일주일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정을 사랑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다시 학교에 가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날이 다가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금방 친해지고,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통해 오늘의 성경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성경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어린이게 되게 해주세요.

다함께: 언제나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듣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성경 이야기



물에서 건져 낸 모세

요셉이 죽고, 요셉의 형제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요셉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지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게 됐어요. 새로운 왕은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적과 힘을 합하거나 이 땅에서 그냥 떠나 버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바로를 위해 도시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시킬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은 점점 더 늘어났고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아졌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들을 더욱 심하게 다루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나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산파 두 명을 불러 이야기했어요. 왕이 말했지요.

“이스라엘 여인이 낳은 남자 아이는 죽여 버리고, 여자 아이는 살려 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렀어요.

“왜 내 명령을 듣지 않는 거지?”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들을 낳아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는 산파들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산파에게 가정을 이루어 주셨답니다.

그 뒤 바로는 모든 국민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남자 아이는 태어나는 대로 모두 나일 강에 빠뜨려 죽여라. 그러나 여자 아이는 살려 두거라.”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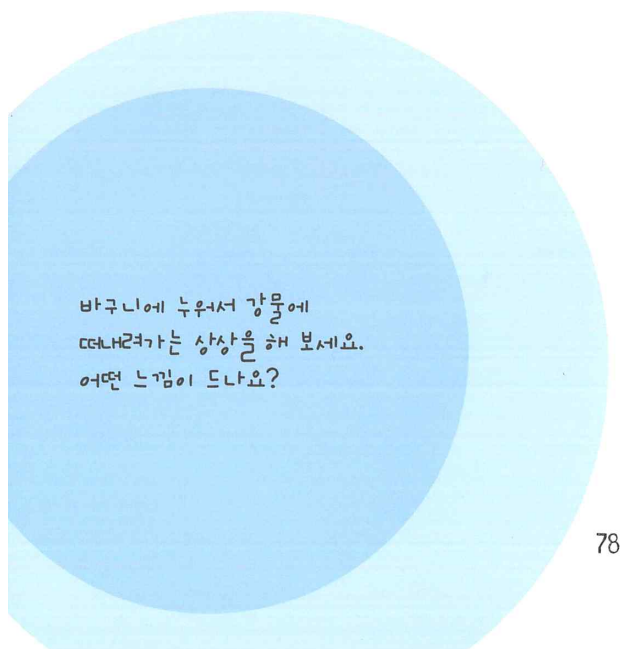
*산파: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잘 나오도록 산모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여자예요.

이שראל *레위 족속의 한 남자가 같은 레위 족속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여자는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아이를 죽여야 했지만, 여자는 자신의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3개월 동안 숨겨 길렀어요. 아이가 점점 자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작은 바구니를 만들어 아이를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바구니를 나일 강에 띄워 갈대 사이로 떠내려 보냈지요.

아이의 누나는 바구니를 따라가며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때 바로 왕의 딸이 나일 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바구니 속에 담긴 아기를 보았어요.

바로왕의 딸이 말했어요.

“이שראל 사람의 아기인가 보구나!”



*레위 족속 : 이שראל의 지파 가운데 제사와 성전 봉사를 맡은 지파예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아이의 누나가 뛰어
나갔어요.

“공주님, 혹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이스
라엘 유모가 필요하신가요?”

“그래, 필요하단다.”

소녀는 돌아가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바로 딸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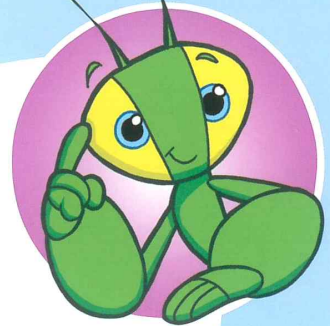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거라. 내가 돈을 내겠다.”

아이가 젖을 떼자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바로 딸에게 데리고 갔어요. 바로 딸은 아
이를 아들로 입양했지요. 공주는 아이에게 ‘건지다’라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
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 냈다.”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보세요!



🍎 기도해요

- ✦ 여러분이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 실천해요

- ✦ 여러분보다 어린 친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두 가지 생각해서 이번 주에 실천하세요.
- ✦ 짚이나 풀, 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여러 가지 물건을 담아 물에 띄울 수 있는지 실험해 보세요.

3.주기도문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